



9면

호남권 최초 가야역사관 '첫 삽'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음 2월 14일) 제274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인구정책 체감 향상 '역량 집중'

**전북도, 올해 시행계획 의결**  
 저출생·농촌활력 등  
 6개 분야 190개 사업 추진

청년 취업 등 유인책 마련  
 정주여건 개선 등 의견도

전북도가 인구종합대책의 분야별 내실화와 도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

도는 '인구정책 민관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고자 2021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도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2018~2022)에 기반한 2021년 시행계획으로 6대 분야(출생, 청년·일자리, 고령화·중장년, 농촌활력, 다문화, 도시재생)별 주요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인구종합대책 수립 4년차로 그간의 정책효과를 점검·진단해 ▲사업의 내실화 ▲정책 체감도 향상 ▲지속적인 기반구축에 방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우선,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추진과제와 사업을 다양화(지난해 12개 과제 175개 사업, 올해 13개 과제 190개 사업)하고, 목표를 상향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일자리, 청년수당 지원, 돌봄공동체 지원 등 체감도 높은 정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테마가 있는 경관마을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기반구축을 통해 도내 거점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갈



코로나19 위기극복·소상공인 살리기

25일 전북도청 4층 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도내 5개 금융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극복,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한 5개 금융기관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은행, NH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다.

예정이다.

2021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분야별 주요과제는 6대 분야 13개 과제 190개 사업으로 올해 예산액은 1조 228억원 규모다.

도는 분야별 주요과제의 실행력을 높임과 동시에 인구정책 브랜드 사업, 인구 관련 인식개선 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 요인 극복 및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대책으로 전북도가 특색있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인구정책 브랜드 사업(6대분야 11개 사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맞춤형 교육(도민 인구교육, 대학 인구교육 강좌 지원 등), 인식개선 홍보(콘텐츠 공모 등), 인구정책에 모범적

인 협력 기업 및 단체, 개인 등을 발굴해 재정지원 및 포상방안을 마련하고,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전북 직장문화 조성·확산에 주력한다.

또한, 인구감소 지역 관련 공모사업 추진 및 적극 대응(행안부 통합 지원사업),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대응에도 집중한다.

이와 함께 1시·군 1특화 인구정책으로 전주 어르신 친화형 통합돌봄 주거거기반 구축, 군산의 찾아가는 동네문화 카페 행복학습센터 운영, 익산형 근로청년 수당 등 14개 사업을 시·군과 협력해 추진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청년유출과 관련해 취업 지원 등 강력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며, 정주 여건 개선 및

육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의견 등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전북도는 이날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인구 유입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인구정책 민관위원회 위원장인 최훈 행정부지사는 "작년 말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인 인구감소 추세 속에서 전북도의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새롭게 출범한 제2기 민관위원회와 함께 2021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공무원인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관할 공개대상자 202명에 대한 2021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25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전북도 공직유관단체 장 7명과 시·군 의원195명이며,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고지거부대상 제외)의 재산 변동 내역이 모두 포함돼 있다.

도지사, 행정·정무부지사, 도의회 의원(39명), 시장·군수(14명) 등 공개대상자 56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같은 날(25일) 관보에 공개됐다.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재산등록 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해 3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시·군 의원 등 전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02명의 공개내역은 25일부터 전북도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규모 및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6억 8,893만원으로 전년도 신고재산액 평균 대비 약 5,608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 재산공개대상자 202명 중 1억원

## 도내 공직자 평균 재산액 6억8893만원... 전년보다 ↑

도 공직자윤리위, 202명 대상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재산 증가자 143명·감소자 59명 전년대비 각각 5.8%p ↑·↓

전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관할 공개대상자 202명에 대한 2021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25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전북도 공직유관단체 장 7명과 시·군 의원195명이며,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고지거부대상 제외)의 재산 변동 내역이 모두 포함돼 있다.

도지사, 행정·정무부지사, 도의회 의원(39명), 시장·군수(14명) 등 공개대상자 56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같은 날(25일) 관보에 공개됐다.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재산등록 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해 3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시·군 의원 등 전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02명의 공개내역은 25일부터 전북도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규모 및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6억 8,893만원으로 전년도 신고재산액 평균 대비 약 5,608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 재산공개대상자 202명 중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가 82명(40.6%)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1억원 미만이 33명(16.3%), 20억 원 이상 보유자도 11명(5.5%)이다.

재산 증가자는 143명(70.8%), 재산 감소자는 59명(29.2%)으로 전년도 보다 재산 증가자는 5.8%p 증가, 감소자는 5.8%p 감소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증가요인은 개발공시지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추가 상승 등 가액 변동 요인의 상승과 급여(수입) 저축 등이며, 감소사유는 생활비·교육비 지출, 기존 신고대상의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망, 직계비속인 자녀(딸)의 혼인 등)로 인한 재산 감소 등으로 신고 됐다.

전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 말까지(공개 후 3개월 이내) 금번 공개한 모든 공개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 기재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은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기 재산공개대상자 202명 중 1억원

전북대학교가 기술사업화 지원 플랫폼(http://tlo.jbnu.ac.kr/)을 구축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는 대학이 가진 우수 연구와 기술 등 인프라를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기업과 매칭이 돼 대학이 기업의 성장파트너로서 지역발전을 이끌 유니콘 기업을 만들겠다는 전북대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최근 문을 연 기술사업화 지원 플

## 대학 보유 우수기술 기업 이전... 기술사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

기업 애로기술까지 해소 대학-기업 동반 성장 '통로' 기대

플랫폼에서는 전북대가 가지고 있는 우수 연구기술들을 기업이 손쉽게 검색해 기술이전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화 활성화뿐 아니라 대학 연구자와 산학공동 기술 개발 과정을 수

행하는 등 상시 협력체제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우수 기술들을 기반으로 기업의 애로기술까지 해소할 수 있어 대학과 지역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



는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대학이 보유한 우수기술이 적극 활용되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기환 연구부총장은 "기술사업화 지원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기술 마

케팅뿐 아니라 대학과 기업의 상시 산학협력 체계가 구축돼 지역 기술사업화 활성화가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기업이 전하고,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